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결	서 무	간 사	의 장
재			

제7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 시	2017. 02. 06(월) 10:00
		장 소	본부관 311호
참석인원	의장 이창현, 부의장 윤정국, 한화택, 안승권, 박성호, 이태준, 전수빈, 노경조		
업무지원	간사 이승구, 서무 이해경		
불참의원			
발표자	기획처장 정승렬, 예산평가팀장 조준, 예산평가팀 양윤선		

◎ 회의내용

[안건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결과 BIT대학원 및 공과대학의 답변을 듣고 의원들 모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심의에 동의함

[안건 2. 2017학년도 예산(안) 자문]

- 2017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바,
 -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의해 2~3년 전부터 미리 언급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갑작스러운 진행에 우려가 깊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경제 문제와 신입

생의 수의 감축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지를 확보하겠다는 도전적인 전략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지만 교내 구성원들의 희생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구성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작업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함

- 모든 지출은 증액이 되는데 반해 연구비만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줄이고 고임금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학교 측의 계획으로 보이며 심각한 문제인 만큼 더욱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해외출장비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각종 출장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안건 3. 기타 토의사항]

- 교수회 부회장(박영일 교수)이 참석하여 학교 측의 '교수임금체계 변경 계획'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을 브리핑함

- 학교 측에서 제시한 교수임금체계 변경 계획에 관해 교수회 평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함

첫째,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이나 취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실질적 임금 삭감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 개편의 이유 중에 하나인 부동산 매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넷째, 징벌적 임금 삭감제도보다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유용하다.

다섯째, 분야별 다양성을 가진 교수들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섯째, 조직공헌도라는 학교 당국의 자의적 평가기준은 교수 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

- 이에 따라 전체교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투표율 73.84%, 개편 반대 96.4%, 개편 찬성 3.0%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학교 본부에 개편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고 2월 6일(월)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말함

- 교수임금체계 변경 계획에 관해, 각 단과대학별로 다양한 의견을 받았으며 내용이 구체화되면 전체 교수들에게 전달, 피드백을 받아 몇 차례 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음